1990년 4/4분기 유가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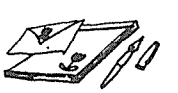
OPEC평균유가는 7월 15.13달러, 8월 24.47달러, 9월 31.12달러를 나타냄으로써 3/4분기 평균 23.57달러를 나타내었다. 최근 유가의 특징은 ①중동전쟁 확대가능성에 따른 불안심리가 매우 높게 반영되어 있고, ②공급중단된 이라크·쿠웨이트 원유가 경질인 까닭에 Brent를 비롯한 경질원유의 상대적 강세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3/4분기의 OPEC원유생산실적은 21.6백만b/d로 추정된다.(7월 : 23.1백만b/d), 8월 : 20.0백만b/d, 9월 : 21.9백만b/d). 8월과 비교할 때 9월의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의 산유량은 각각 150만b/d, 40만b/d 증가하였다.

3/4분기 전체의 수급구조를 살펴보면 실질적인 공급부족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재고방출이 120만b/d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4분기말의 상업적 육상재고수준은 전년 동기보다 재고일수가 1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구조 측면에서만 본 3/4분기 유가는 21달러내외가 적정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9월 하순부터 또다시 유가가 폭등한 것은 UN안보리의 對이라크 공중봉쇄,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의 이스라엘 공격 내지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파괴 위협발언이 시장심리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무력충돌도, 협상타결도 없는 지금까지의 교착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4/4분기에는 실질적인 공급부족 발생이 불가피하다. 중동사태 발생에 따른 소비감축(약 110만b/d)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의 증산노력을 감안하더라도 4/4분기에는 190만b/d 정도의 공급부족이 발생하게 된다.

190만b/d의 공급부족중 60만b/d까지는 작년 연말과 같은 재고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상업적 육상재고 방출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년 연말의 재고수준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상업 재고방출은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자유세계 소비국들은 4/4분기동안 130만b/d 내외의 실질적 공급부족을 소비절약 등으로 감내하든가 정부비축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다.

이상의 수급상황을 근거로 한 4/4분기 유가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이라크·쿠웨이트 원유공급이 즉각 재개되지 않는 한 25달러 이상 유가는 수급구조상 불가피하다. 둘째, 현재의 석유시황은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급장애가 발생할 경우 유가급등이 초래될 수 있다. 북해유전사고, 소련·호주등의 유전 또는 탄광파업, 소비국의 정유공장사고 등이 유가급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금년 4/4분기 기후에 따라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 한파가 내습할 경우 난방 연료유 수요증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질제품(가솔린, 난방 연료유)의 수급불균형은 원유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향후 유가전망을 힘들게 하는 것은 中東戰의 向方이다. 위의 여러가지 불안요소를 감안하여 10월초 현재의 유가에는 7달러 이상의 심리적 요인이 반영되어 있다. 교착상태가 계속되는 한, OPEC유가는 25~35달러의 불안정한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라크와 미국 등 다국적군의 본격적 무력충돌은 40달러 이상의 초강세를, 협상국면 돌입은 25달러 내외의 안정세를 나타내게 할 수 있다. 협상타결에 따른 쿠웨이트·이라크 원유수출재개 또는 협상과 병행한 정부비축 석유방출(*IEA*, 미국 *SPR*)이 있을 경우에는 21~25달러의 유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동향〉